

홉스의 인간에 대한 견해와 그 제한성

정 심

유럽에서 처음으로 신흥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명백히 대변하는 정치리론을 만들어낸 홉스의 사상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는것은 선행철학에 대한 연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행철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보적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제한성과 미숙성을 똑똑히 가려보는것이 중요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416페이지)

홉스의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의 인간에 대한 립장이다.

홉스는 인간의 《자연본성》을 두 측면에서 해명하였다.

그 하나는 기계론적유물론적립장이다. 홉스의 기계론적유물론적립장은 본질상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을 토대로 한 스콜라철학의 목적론적세계관을 배격하기 위한것이였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적세계에는 선과 악이나 목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 목적이란 인간이 자연속에 가져다 넣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신학인 스콜라철학에서는 신이 세계의 최종목적으로 설정되어있고 세계는 무기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등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낮은 단계의것은 보다 높은 단계의것을 목적으로 하여 움직이고있다.

그러나 홉스에 의하면 스콜라철학에서 주장하는 존재론이나 데카르트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지적능력, 사고도 물리적과정에 환원되는것으로 하여 그의 고유한 의미가 배제되게 된다. 홉스는 데카르트가 《인간의 최고의 완전성》으로 본 자유의지를 인과적결정론의 립장으로부터 부정하였으며 어떠한 욕구와 혐오도 그에 앞선 상태로부터 오는 인과적귀결이고 오직 문제로 되는 행위에 직접 앞선 《최초의 욕구》가 소급되어 의지로 지양되고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간을 기계에 비유하였다.

그에 의하면 생명이란 사지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심장은 태엽, 신경은 선(관), 관절은 치차이다. 이것은 당시 인간에 대한 신비주의를 배격하는데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사람은 기계적운동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창조적능력으로 실현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이다. 인간을 단순한 기계로 보면 인간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부정된다.

인간을 기계로 본 홉스는 인간이 창조한 국가도 기계에 비유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연의 가장 우월한 작품》인 자기를 모방하여 국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인공적인 인간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서 주권자는 《인공적정신》이고 사법, 행정은 《인공적관절》이며 표창, 처벌은 《인공적신경》이라고 하였다.

홉스의 인간에 대한 기계론적유물론적립장은 사실 불철저한것이였다.

그것은 그가 《레비아산》에서 《자연학의 제 원리》로부터는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배울수 없다.》라고 서술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는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자연과학적분석이 아니라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기계론적유물론적립장과 배치되는 립장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사고와 정념이 서로 류사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신이 어떤 사고와 정념을 경험하는 때 무엇이 어떻다고 말하는 근거를 분석하면 그에 의하여 동일한 경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정념을 읽어낼수 있으며 알수 있다.

이것은 그가 인간본성에 대한 분석에서 기계론적유물론적립장과는 다른 입장을 시인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그에 의하면 자연학적으로는 다른 동물과 그 어떤 본질적차이도 가지지 않는 기계인 인간이 사고와 정념을 경험하면서 살고있는 《욕망하는 주체》로도 파악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멈출수 없는 차례로 힘을 구하는 영속적이고 부단한 욕망》이 《전인류의 일반적경향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인간에 대한 견해가 모순적인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사실 그에게서 이 모순은 불가피한것이였다.

홉스의 철학은 유물론적자연관과 관념론적정치학이 축으로 되어있다. 이런 조건에서 유물론적자연관으로부터는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견해가 나왔고 관념론적정치학으로부터는 인간을 《욕망의 주체》로 설정하는 견해가 필요하였던것이다.

사실 인간은 기계가 아닌것처럼 단순한 욕망의 주체도 아니다. 인간을 욕망의 주체로 보면 인간의 동물적행위의 합리화에 귀결될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홉스의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가치의 상대성, 주관성에 대한 주장이다.

홉스와 같이 자연세계에서 가치의 의미의 원천이 발견되지 않고 인간이 그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선과 악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그러나 자연적인 인간의 기본욕구는 식욕과 색욕이다. 그외의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사람들의 체질과 습관, 경험과 교육이 어떤가에 의하여 다양하기때문에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홉스는 어떠한 인간도 각기 자신에게 즐겁고 기쁜것을 《선》으로 부르고 불쾌한것을 《악》으로 부르기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고 그 결과 선과 악에 대한 공통적 구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신에게 귀속시키는 선성조차도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성이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가치에 대한 이러한 주관적, 상대주의적립장으로부터 홉스는 《옛날의 도덕철학자들의 책중에서 이야기된것과 같은 궁극목적도, 최고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하였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속에, 세계속에 무엇이 인간에게서 선인가, 무엇이 인간에게서 행복인가를 표시하여주는 객관적인 척도와 규준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선과 행복의 척도로 되는것은 결국 개별적인인들의 욕망의 다양한 존재방식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주관주의, 상대주의는 부르쥬아사상가인 홉스의 개인주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홉스에 의하면 도대체 살고있다는것자체가 무엇인가를 욕구하고 욕망하고있는것과 같기때문에 욕망없는 인간은 감각과 표상이 정지된 인간과 같고 이미 산다고 할수 없다. 또 어떤 욕망이든 그것이 만족되고 실현되는것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이며 행복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생이란 욕망이 만족되는 동시에 그 실현을 목적하여 살고있는 그러한

무제한한 욕망과 그 충족의 선택로밖에 생각할수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의 욕망이 목적하는것은 오직 한번의, 잠간사이의 향수는 아니고 본래의 욕망의 길을 언제까지나 확보하는데 있다. 모든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와 경향성은 만족한 생활을 손에 넣는것만은 아니고 확보하는것으로 향하는것으로 된다. 오직 그 방식이 다를뿐이다.》(《레비아산》 11장)

이것은 흄스가 가치의 상대성을 주장하면서도 욕망충족에서 오는 향수가 아니라 어떤 방식에서든 개인의 본성적욕망의 충족을 주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흄스의 이런 주장은 결국 리기적욕망충족을 위한 부르조아적인생관에 대한 합리화에 귀착되는것이다.

흄스의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힘에로의 욕망》의 보편성이다.

흄스가 말하는 인간의 힘이란 《얼마간의 장래에 선으로 볼수 있는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자신이 현재 가지고있는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에게서 인간의 힘이란 육체의 강인성, 사려깊음, 너그러움과 같은 《본인에게 갖추어진 힘》이나 부친, 친우, 평판 등과 같은 《도구의 힘》이며 그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선(욕구의 대상)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면 어느것이나 다 속한다.

이것은 부르조아사상가인 흄스가 인간의 힘을 욕망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리해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흄스에 의하면 때 사람에게 있어서 《선》이 어느 정도 달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즉 《힘》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인간의 《힘》은 웅변이든 학식이든 정치적권력이든 대개 무엇이든 사실은 타자의 다양한 힘을 리용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타자로부터 정말 《힘》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힘은 어떠한것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타자로부터의 평가와 그 평가에 동일한 힘을 가지고있는 타자와 비교하는 2중의 상대적관계중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이것도 역시 부르조아사상가인 흄스가 인간의 힘을 상업적측면에서 그릇되게 분석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흄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타자로부터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기와 타자의 《힘》의 우열을 언제나 느끼고있다. 《서로에 대해 부합되는 가치표명》이 본인의 평가와 조금이라도 틀리면 곧 《칭찬》과 《치욕》 즉 자기에 대한 《영예》와 《치욕》으로 감수된다.

흄스는 자기의 글에서 《누구나 자기스스로 부친것과 동일한 정도로 동포들이 자기를 평가하여줄것을 바라고 온갖 경시와 과소평가에 처하면 자신을 경시하는자에게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또 기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는것에 의해 자기가 느낄수 있는 보다 큰 평가를 끌어내려고 꾸준히 노력하게 된다.》(《레비아산》 13장)라고 썼다.

그런데 타자에 의한 승인 그자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게 되는 까닭에 승인에로의 욕망은 힘에로의 욕망으로 전화하며 마침내 량자는 나누어볼수 없게 된다.

이것은 흄스가 《힘에로의 욕망》을 사회속의 인간의 보편적성질로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흄스의 개인리기주의적립장의 귀결이다.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리해나 힘에로의 욕망의 보편성에 대한 리해는 다같이 흄스의

개인리기주의적립장의 산물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은 살아가기 위하여 타자의 힘을 필요로 하고 타자의 평가를 필요로 하고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까닭에 타자에 대한 자기의 우월감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타자로부터의 파소평가와 멸시와 무시에 대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낀다. 이것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상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홉스는 《인간의 자연본성중에서 우리는 3개의 중요한 싸움의 원인을 찾는다. 첫째는 경쟁, 둘째는 불신, 셋째는 자존심이다. 첫째의것은 리득을 구하고 둘째의것은 안전을 구하고 셋째의것은 평판을 구하여 어느것이든 다 타인을 침해하는데 이른다.》(《레비아산》 13장)라고 하였다.

이것은 홉스가 인간은 반드시 공동생활에 만족한 자연적본성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홉스는 인간은 타자와 사귀는것을 자연본성에 의하여 강하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에 맞게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홉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이론적으로는 긍정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부정하여나섰다.

결국 홉스의 인간에 대한 리해를 요약하면 다음의것에 귀결된다.

우선 홉스는 인간을 자연적존재로, 수동적인 기계로 취급하였다. 이것은 당시 인간에 대한 종교적관념론적견해를 반대하는데서는 의의가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왜소화한 그릇된 견해이다.

또한 홉스는 인간을 사고와 정념을 가진 존재, 《욕망을 가진 주체》로 취급하였다.

인간을 《욕망을 가진 주체》로 보는 한 그 욕망실현이 문제로 되며 욕망실현을 위한 행위가 합리화되게 된다. 이것은 부르쥬아사상가로서의 홉스의 립장에서는 동물적행위에 대한 미화에로 이어지게 되는것이다.

더우기 그에게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논의는 초계급적이며 초력사적인것으로서 막연한것이다. 사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욕망은 구체적성격을 띠고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홉스는 인간에 대하여 철저한 개인주의적리해를 표명하였다.

인간은 집단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쥬아지의 리해관계의 대변자인 홉스는 개인주의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홉스가 인간의 욕망충족에서 오는 행위를 배격하고 인간의 본성적욕망의 확보를 주장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적욕망은 철저히 상대적이며 주관적인것에 귀결되였다.

또한 홉스는 인간을 사회적이면서 비사회적존재로 보고있다. 이것은 약육강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된 당대 영국의 사회상의 반영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극히 모순적인 견해로서 당대 사회의 합리화를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